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김 현 순[†]

김 병 석

단국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자살생각 구조모형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 221명과 청소년 221명에게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스트레스 척도, 절망 척도, 우울 척도, 자살생각 척도로 구성된 동일한 설문지를 실시하여 그 변인들의 특성과 구조적 관계를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살생각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우울이었으며, 우울은 스트레스보다 절망과 상관이 더 높았다. 둘째, 경쟁모형¹이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는데, 이는 자살생각에 대한 절망과 우울의 매개효과에 있어 절망보다 우울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예측변인들이 기준변인을 설명하는 설명력으로 볼 때, 자살생각은 우울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인이었다. 이 연구의 의의와 그 시사점을 논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살생각, 스트레스, 절망, 우울, 구조적 관계

[†] 교신저자 : 김현순, 단국대학교 강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건영빌라 1001-403
Tel : 031-901-4991, E-mail : khsbcr@hanmail.net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급증하여, 자살로 인한 사망자 증가율은 현재 OECD 국가 중 1위로(OECD, 2006), ‘자살’은 단순한 현상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6년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688명으로 자살률 23.0인데, 이는 인구 10만 명 당 23명이 자살한 것이고, 하루 평균 29명이 자살한 것을 의미한다(통계청, 2007).

이러한 자살현상은 가족과 사회에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즉, 자살과 자살시도는 생명의 상실, 신체적 손상과 의료적 비용, 슬픔과 고통, 가족과 지역사회에 해체의 견지에서 엄청난 비용손실이다(Marschean, 2002). 따라서 최근 자살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자살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혹은 치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자살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살이라는 용어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하며 또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혹은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남민, 1997). 자살의 개념은 포괄적이어서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 그리고 자살행위(suicide behavior)에 이르는 연속적인 개념(spectrum)으로 정의할 수 있다(Harwood & Jacoby, 2000). 이와 같이 연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자살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자살을 고립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살의 경향성, 자살행동의 유발요인, 자살의 위험도 측정 등에 대한 연구를 가능케 하고 있다.

자살생각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O'carroll, Berman, Maris, Moscicki, 1996; White, 1989)로 누구나 한번쯤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현상에서부터 정말 죽으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된다. 자살생각은 자살행위 자체와는 분명 다른 속성을 지니지만 여전히 자살변인의 한 요소로서 자살행위의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자살행위는 자살시도를 경험한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고, 자살시도는 자살생각을 많이 경험한 자들에게서 발생한다(Bonner & Rich, 198; Lester, 19897). 이처럼 자살생각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자살시도나 자살행위에 앞서므로 자살행위의 결정요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자살행위로의 위험을 이해하거나 예방하는데 일조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서 시작된다. 자살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모델에는 사회학적 모델, 심리학적 모델, 유전생물학적 모델,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이 있다.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사회 심리적 소인과 개인이 속한 환경의 상호작용 경험이 심리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즉,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은 어떠한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대하여 견디는 힘이 적어서 쉽게 심리장애를 갖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취약한 요인이 적은 사람은 심한 스트레스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은 자살의 배경이 되는 취약성 요인(risk factors; predisposing factors)과 자살을 일으킬만한 환경적 스트레스인 촉발사건(precipitating events)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Felner & Silverman,

1995; Mosciki, 1995). 이 모델은 기존의 이론적 모델들이 자살과 관련된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해 주어(원호택, 1997) 자살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도록 해 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근거하여 자살생각 관련변인으로 환경적 요인인 스트레스와 개인의 취약성 요인인 절망과 우울을 설정하여 이들의 관계 검증을 통하여 자살을 이해하려 한다.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 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한 관계”라 정의될 수 있는데(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 우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이나(Nolen-Hoeksema, Gargus, & Seligman, 199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Allgood-Merten, Lewinsohn, & Hopes, 1990)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Beautrais, Joyce, & Mulder, 1997; Brent et al., 1993; Gould, Fisher, Parides, Flory, & Shaffer, 1996; McKeown, Garrison, Cuffe, Waller, Jackson, & Addy, 1998; Rubenowitz, Waern, Whitemson, & Allebeck, 2001; Shaffer, 1974)이 스트레스와 힘든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 자살과 관련된 행위가 발생하는 정도를 검토하였다. Baumeister(1990)는 자살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스트레스, 즉 기대하는 상황과 현실 상황과의 괴리와 그 스트레스들이 자기에게 주는 의미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구가 합쳐져 나타난다고 하였다. 결국 심한 스트레스는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현실도피의 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한다. Wilson 등(1995)도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은 자살 시도 전 몇 주 혹은 몇 달 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스트레스 사건의 통제정도를 부정확하게 평가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자살을 다룬 연구들은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음을 보여주었다(Wilson et al., 1995). 즉,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사건이 자살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De Wilde, Kienhorst, Diekstra, & Wolters, 1992)이며, 청소년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살률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광배, 신민섭, 1991).

이런 상황적 스트레스에 개인의 취약성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자살생각을 유발하게 하는데, 자살생각과 자살행위가 우울증 진단 준거에 포함된 사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우울은 단일 요인으로서 자살을 이끄는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Klerman, 1987). 즉,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보이는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을 보이는 심리장애로 간주되어 왔다(White, 1989).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 상태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포함하는 정서장애에 이르기 까지 인간의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를 포함한다(김성일, 정용철, 2001). 우울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의 하나로, 정상인들이 스트레스 사건에 나타내는 가벼운 우울반응에서부터 정신치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적 범주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특성을 갖는다(이주은, 1995). 여러 연구에서 우울은 청소년의 자살기도와 관련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Calson & Cantwell, 1982; Crumley, 1979). 또한,

자살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우울이라는 연구 보고(Rainer, 1984; Weissman, 1974)와 자살충동의 가장 강한 예측인자들이 우울 증상이었다는 연구들도 있다(Kandell, Ravies & Davies, 1991; Maris, 1981; Sherer, 1985). 자살시도자의 사후 조사 결과 거의 모든 노인 자살시도자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 우울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경우 자살을 시도하는 노인의 40%에서 80%가 우울증상을 보인다고 한다(Conwell, 1997). 아울러 Forsell, Jorm과 Winblad(1997)는 우울증상이 노인의 자살생각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우울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 중에 하나로(임인순, 2004), 자살을 시도했거나 지속적인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40%가 우울의 주요증상을 보이고(Greuling & DeBlassic, 1980),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임상적 특성이 우울증 환자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송동호, 이홍식, 전여숙, 정유숙, 1996). 중학생 3,20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상을 예측하는 유의한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살생각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임으로써 우울과 자살생각 간에 강한 상관성이 나타났다(Robert & Chen, 1995).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서 우울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Asarnow, Carson & Guthrie, 1987; Cole, 1989).

그러나 Beck(1963)은 우울증의 사고과정들(thought processes)에 대해 보고한 이래 우울은 절망과 자살사이를 연결시키는 요인임을 주장해 왔다. 절망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이다(Beck, Weissman, Lester, Trexler, 1974). 즉,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즉 자신이나 어느 누구도 불행이나 고통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다(Brent et al., 1987; White, 1989).

절망은 자살생각과 함께 자살시도 및 자살완결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살행위를 예측하는 중요한 심리적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Beck et al., 1990; Brown, Beck, Steer, & Grisham, 2000; Lynch, Cheavens, Morse, & Rosenthal, 2004). Beck(1967)은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하여, 우울증의 정서적인 측면보다는 절망이라는 인지적 요인이 자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울이 통제적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절망과 자살간의 상관이, 절망이 통제된 상태에서 우울과 자살간의 상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다(Beck, Brown, Berchick, Stewart, Steer, 1990; Cole, 1989). Beck, Steer, Beck과 Newman(1993)도 그들의 연구를 통해 절망은 자살사고를 설명하는데 우울보다 1.3배 정도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자살의 가장 좋은 단일 예측인자라는 것이며(Beck, Steer, Kovacs & Garrison, 1985), 그 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적 연구에서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였는데, 즉, 절망은 우울증보다 자살관련 행동에 대해 더 강한 예측인자라는 것이다. Wetzl(1976)도 154명의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절망, 우울, 자살위험을 사정해 본 결과 절망감을 통제했을 때 우울은 자살의지와 관계가 없었으나, 우울을 통제했을 때 절망은 자살의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여, 절망이 우울보다는 자살의지와 유

의미한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Kuo, Gallo와 Eaton(2004)은 지역사회 연구 대상자 3,000명을 13년간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를 통하여 자살과 절망간의 관계는 다른 인구학적 변수들(나이, 성, 인종, 결혼상태, 사회경제상태)과 우울 및 물질 사용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자살완결, 자살시도 및 자살사고의 모든 유형의 자살행위와 통계적으로 강력한 유의성을 나타내 절망이 우울보다 자살을 예측하는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인 독립변수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자신들의 연구가 절망이 자살행위의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가 됨을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절망을 낮추는 중재전략이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절망은 많은 상실(예, 배우자의 상실)의 수와 관련 되어 있으므로, 젊은 집단과 비교할 때 특히 노인에게 더 위협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McIntosh et al., 1994). 이밖에도 노인자살에 있어서 자살행위와 생각을 이해하는데 절망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학자들은 주장한다(Osgood, 1991; Ron, 2004).

그러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절망은 자살관련 행동의 강력한 예측인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sarnow, Carson과 Gutgodhrie(1987)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통제되었을 때, 절망과 자살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우울, 절망, 자살간의 관계가 성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를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신민섭 등(1990)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울, 절망, 자살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도 Cole(1989)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임수영(1995)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경우 절망은 자살생각의 5%를 설명하

고 있으나 우울은 자살생각의 27%를 설명해주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Rudd, 1990)에서 절망보다 우울이 훨씬 강력한 예측인자로 밝혀졌다. 청소년은 성인과 자살하는 이유자체가 다르고 자살생각도 성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다. 성인들에게는 죽음이 고통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으나 청소년기는 원래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므로 청소년들의 자살행위에는 비관적 인지보다는 우울한 기분이나 충동적인 요인이 많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우울한 기분이나 분노감에 의해 충동적으로 자살시도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고통스런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성인이나 노인에게는 우울보다 절망이 자살을 더 잘 예언하는 변인이며, 청소년에게는 절망보다는 우울이 자살을 더 잘 예언하는 변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절망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에 영향을 결정하는 결정 변인은 청소년과 노인이라는 연령변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변인을 통제해야 자살에 미치는 절망과 우울이라는 두 변인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특정 연령집단에 국한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이한 연령집단을 동시에 조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김형수, 2006).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연구 방법과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각기 다른 연구대상과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일관되고 총체적인 가설을 세우거나 결론을 유추해 낼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상이한 연령집단인

노인과 청소년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절망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자살기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자살연구에 있어서 상이한 연령집단의 고려는 자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살관련 변인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며, 나아가 연령집단별 자살의 차이성뿐만 아니라 유사성을 조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Nisbet, 2000). 즉, 생애주기가 상이한 집단의 자살에서 발견된 공통적인 특성은 이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의 예방대책에 관한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도는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자살생각에 대한 절망과 우울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상이한 연령집단간의 자살 연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통합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자살생각관련 변인인 스트레스, 절망,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탐색하고자 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살생각 구조모형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스트레스는 직접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절망이나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절망은 우울을 매개하기도 하지만 직접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구조모형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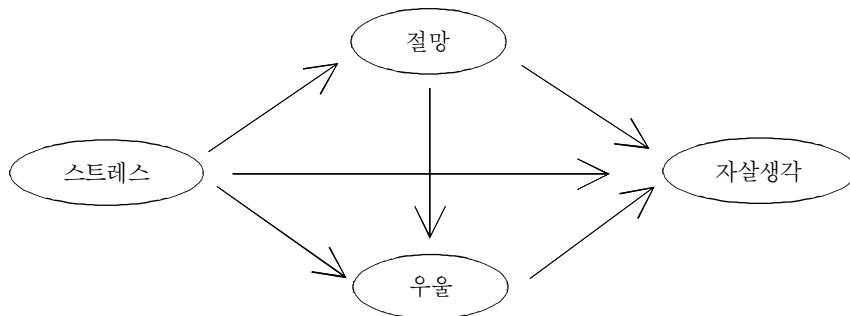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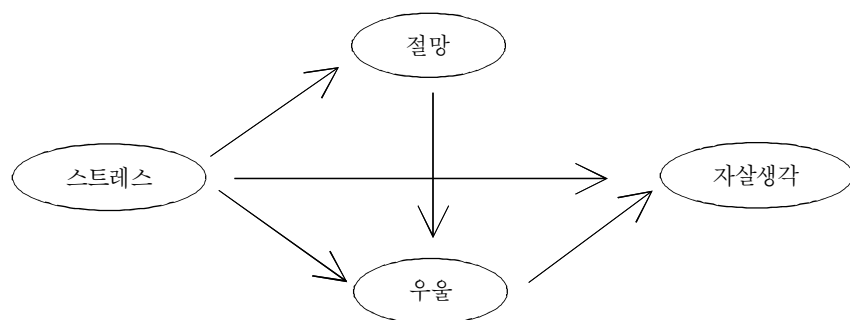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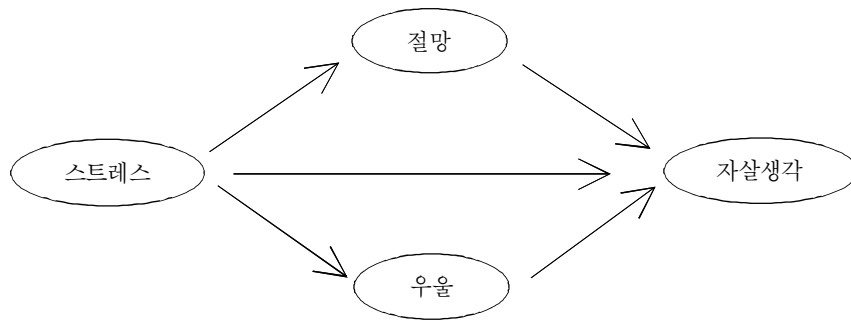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2

로, 이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모형은 그림 2와 같이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절망과 우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절망은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자살생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구조모형으로 이를 경쟁모형 1로 설정하였다.

셋째는 그림 3과 같이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절망과 우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절망과 우울은 서로 매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으로, 이를 경쟁모형 2를 설정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 221명과 청소년 221명으로 총 422명이다. 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에 다니는 노인과 재가노인이며, 청소년은 서울에 소재한 H고등학교와 K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다.

자료 수집은 2007년 7월에서 9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자료는 노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설문지는 응답대상에 맞게 어투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문항의 내용은 동일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수거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노인용은 221부, 청소년용은 252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사례수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노인과 청소년 두 집단의 성비를 비슷하게 조정하기 위해 사례수와 여성비가 더 높은 청소년집단에서 여성 설문지 31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연구대상자는 남성은 174명으로 39.4%이고, 여성은 268명로 60.6%이다. 노인 집단 연구대상자는 남성은 91명, 41.2%이고 여성은 130명, 58.8%이며, 청소년 집단에서 남성은 83명, 37.6%이고, 여성은 138명, 62.4%이다.

측정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인구학적 특성조사문항 9문항(청소년용 8문항), 스트레스 척도 5문항, 우울척도 20문항, 절망척도 20문항, 자살생각 척도 19문항으로 총 73문항(청소년용 65문항)

년용 72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스트레스

한국어판 스트레스 측정도구인 BEPSI-K(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Korean)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의 원본은 1988년 Frank와 Zyznaski가 기존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복잡한 설문 대신 바쁜 외래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1개의 개방형 질문과 5개의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강한 상관성을 보여 외래에서 사용 가능성을 입증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종면, 정은경, 유태우(1992)가 BEPSI-K를 개발하였는데, 임지혁 등(1996)이 이를 다시 수정, 보완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BEPSI-K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스트레스의 외적요구에 대한 생각, 내적인 요구, 기대에 대한 조화, 요구의 불확실성, 요구의 조율을 검증한다.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없다'는 0점, '간혹 있다'는 1점, '종종 여러 번'은 2점, '거의 언제나'는 3점, '언제나 항상'은 4점으로써, 총점 0에 가까울수록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것이고 20점에 가까울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813 이다.

절망

절망척도로는 Beck의 Hopelessness Scale (BHPL; Beck & Weissman, 1974)이 사용되었다. BHPL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즉 자신이나 어느 누구도 불행이나 고통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개인적 실패에 대한 지각, 의기소침, 죄책감, 비참함, 불

행을 자신이나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념을 평가하는 도구로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예', '아니오'로 응답하는 검사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3문항(1, 3, 4, 문항)을 제외한 17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60 이다.

우울

우울 척도로는 신민섭 등(1990)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ZDI(Zung Depression Inventory; Zung, 1965)가 사용되었다. 이 검사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나타내는 보편적인 정서반응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지속적인 슬픔, 불행감, 불안감, 초조감, 무가치감, 비정상적인 죄책감, 피로상태, 체중의 변화, 수면문제, 섭식문제, 즐거운 활동에 대한 흥미 감소, 집중력 및 결단력의 감소, 자살생각 및 자살기도 등 이다. 이 검사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3문항(2, 6, 14문항)을 제외한 17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719 이다.

자살생각

이 연구에서는 Beck, Kovacs, Weissman(1979)의 SSI(Scale for Suicide Ideation)를 박광배와 신민섭(1990)이 번안하고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SSI는 원래 임상 면접을 통하여 임상가가 평정하는 3점 척도로 된 19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나, 많은 피험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박광배와 신민섭(1990)

이 가능한 원래의 문항에 충실하게 자기 보고 형 질문지로 변형하였다. SSI는 자살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를 이끌지는 않지만 검사결과는 이후에 보일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언지표가 될 수 있고, 자살위험에 대한 임상가의 평가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Beck et al., 1979).

이 연구에서는 장미희(2006)문항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노인용과 청소년용은 호칭만을 바꾸어 사용하였고, Likert식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자살생각이 많은 경우가 2점, 보통인 경우가 1점, 없는 경우가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2문항(1, 8문항)을 제외한 17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924 이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에는 SPSS WIN 15.0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연구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계산하고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7.0을 사용하여 자살생각 경로 모형의 노인집단과 청소년 집단 간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살생각과 관련변인들의 기초통계

연구변인들의 특성과 변인들 간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을 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자살생각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우울($r=.436, p<.01$)이며, 그 다음이 스트레스($r=.419, p<.01$), 절망($r=.279, p<.01$)이었다. 우울은 스트레스($r=.422, p<.01$)나 자살생각($r=.436, p<.01$)보다는 절망($r=.497, p<.01$)과 상관이 더 높았다. 절망은 자살생각($r=.279, p<.01$)이나 스트레스($r=.336, p<.01$)보다는 우울($r=.436, p<.01$)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와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우울($r=.422, p<.01$)이며 그 다음이 자살생각($r=.419, p<.01$), 절망($r=.336, p<.01$)이었다. 즉, 자살생각은 우울과,

표 1.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스트레스	절망	우울	자살생각
스트레스				
절망	.336**			
우울	.422**	.497**		
자살생각	.419**	.279**	.436**	
평균	6.90	4.89	5.55	5.65
표준편차	3.91	4.48	3.69	6.72

주. ** $p<.01$

표 2.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스트레스1	스트레스2	절망1	절망2	우울1	우울2	우울3	우울4	자살생각1	자살생각2	자살생각3
스트레스1	1										
스트레스2	.602**	1									
절망1	.356**	.267**	1								
절망2	.249**	.232**	.591**	1							
우울1	.411**	.333**	.349**	.227**	1						
우울2	.256**	.203**	.268**	.317**	.256**	1					
우울3	.245**	.097*	.290**	.349**	.224**	.257**	1				
우울4	.181**	.181**	.369**	.246**	.435**	.251**	.293**	1			
자살생각1	.387**	.333**	.254**	.179**	.379**	.273**	.242**	.249**	1		
자살생각2	.346**	.214**	.260**	.163**	.255**	.175**	.282**	.167**	.697**	1	
자살생각3	.398**	.270**	.383**	.253**	.314**	.279**	.297**	.309**	.611**	.561**	1
평균	3.99	2.93	2.87	3.30	1.99	1.31	.84	1.49	2.62	1.83	1.21
표준편차	2.55	1.82	3.05	2.86	1.79	1.44	1.15	1.26	3.63	2.56	1.48

주. ** $p < .01$ * $p < .05$

우울은 절망과, 스트레스는 우울과 가장 상관이 높았다.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들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측정변인별로 변인들 간의 상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자살생각 모형 검증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 경쟁모형 2의 적합도를 분석, 비교하여 경험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면서도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 경쟁모형2를 비교하기 위해 세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fit

index)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적합도 판단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절대 적합도 지수인 X^2 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증분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를 사용하였다. 모형적합도의 판단기준은 $CFI > .90$, $TLI > .90$ 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 .05$ 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 .08$ 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 < .10$ 이면 보통 적합도이다(홍세희, 2000).

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경쟁모형2의 적합도는 TLI와 RMSEA는 .875와 .090으로 위의 적합도 기준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았으며, X^2 도 연구모형이나 경쟁모형1에 비해 커서 경험적 자료에 부합되지 않은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TLI,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의 적합도 지수

	X ²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18.573***	38	.927	.949	.069
경쟁모형1	119.155***	39	.929	.950	.068
경쟁모형2	179.859***	39	.875	.911	.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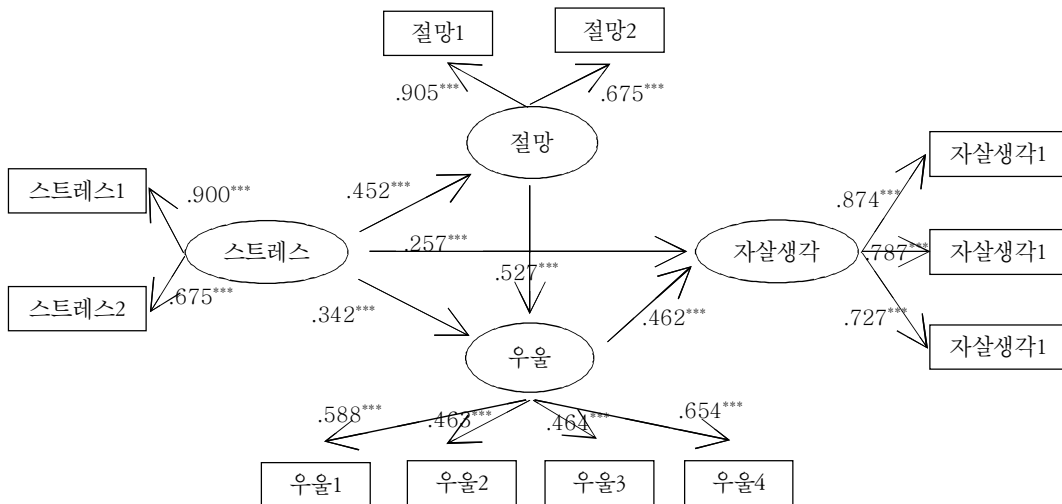
주. *** $p < .001$

CFI는 .927, .949이고 RMSEA는 .069이며, 경쟁 모형1의 TLI, CFI는 .929, .950이고 RMSEA는 .068로서 두 모형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고 두 모형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연구모형의 X²은 118.573이고 df은 38인데 비해, 경쟁모형1의 X²은 119.155이고 df은 39로서 두 모형간의 차이는 ΔX²는 0.582이고, Δdf은 1이었다. 이는 Δdf=1에 유의미한 차이인 ΔX² = 3.84(p=.050)보다 작으므로 연구모형에 비해 경쟁모형1이 자유도가 더 높은 간명한 모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유의도 수준을 알아본 최종모형의 경로도는 그림 4와 같다.

이런 경로를 통해 자살 관련변인들이 자살 생각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림 4와 표 4를 종합해 보면, 스트레스는 절망에 직접 영향(.452, $p < .001$)을 미쳤다. 우울은 스트레스의 영향(.581, $p < .001$)을 가장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 영향($p = .342$, $p < .001$)을 미치기도 하고 절망을 매개하



주. *** $p < .001$

그림 4. 최종모형의 경로도

표 4. 자살생각에 대한 자살 관련변인들의 효과

기준변인	예측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매개효과	R ²
절망	스트레스	.452***	.452***	-	.205
우울	스트레스	.581***	.342***	.238***	.558
	절망	.527***	.527***	-	
자살생각	스트레스	.525***	.257***	.268***	.416
	절망	.243***	-	.243***	
	우울	.462***	.462***	-	

주. * $p < .05$ ** $p < .01$ *** $p < .001$

여 영향(.238, $p < .001$)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에서는 스트레스(.342, $p < .001$) 보다 절망(.527, $p < .001$)의 효과가 더 컸다. 자살생각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스트레스(.525, $p < .001$), 우울(.461, $p < .001$), 절망(.243, $p < .001$)순이었다.

스트레스는 직접 자살생각에 영향(.257, $p < .001$)을 미칠 뿐 아니라 절망과 우울을 매개하거나 우울만을 매개(.268, $p < .001$)하여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525, $p < .001$)을 미치는데 그 매개효과(.268, $p < .001$)가 직접효과(.257, $p < .001$)보다 컸다. 우울은 직접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직접효과(.462, $p < .001$)는 스트레스의 직접효과(.257, $p < .001$) 보다 컸으며, 절망은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우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243, $p < .001$)을 미쳤다.

예측변인들이 기준변인을 설명하는 설명력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절망의 20.5%를 설명하였고 스트레스와 절망은 우울의 55.8%($p < .001$)를, 스트레스와 절망과 우울은 자살생각의 41.6%($p < .001$)를 설명하였다. 우울에 대한 설명력(55.8%, $p < .001$)은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41.6%, $p < .001$)보다 높았다.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자살생각관련 변인인 스트레스, 절망,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 221명과 청소년 221명에게 인구학적 변인과 스트레스 척도, 절망 척도, 우울 척도, 자살생각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여 그 변인들의 특성과 구조적 관계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생각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우울이었다. 이런 결과는 우울은 자살에 있어서 단일요인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위험요인이라는 여러 연구결과(김형수, 2002; Calson, Cantell, 1982; Conwell, 1997; Conwell, Caine & Olson, 1990)와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우울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가장 밀접한 상관을 보이는 심리장애로 간주된다는 White(198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절망은 자살생각을 설명하는데 우울보다 1.3배정도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한 Beck 등(199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

다. 우울은 스트레스($r=.422, p<.01$)보다는 절망($r=.497, p<.01$)과 상관이 더 높았다.

둘째, 경쟁모형1이 최종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경쟁모형1은 절망에서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 없이 절망이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이다. 경쟁모형1은 절망에서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가 있는 연구모형이나, 절망과 우울의 상호관련이 전혀 없는 경쟁모형2보다 경험적 자료와 더 일치하였다. 이는 자살생각에 대한 절망과 우울의 효과에 있어 절망보다는 우울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절망은 자살사고를 설명하는데 우울보다 1.3배 정도 중요한 변수이며 (Beck et al., 1993),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자살의 가장 좋은 단일 예측인자(Beck et al., 1985)라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오히려 절망은 직접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었다는 육성필(2002)의 주장과 일치한다. 육성필(2002)은 자살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는 군인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절망은 직접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반 군인과 일반대학생까지를 포함한 전체집단의 경로분석에서도 절망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인과 청소년 집단 모두에게서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력이 있는 매개 변인은 우울임이 검증됨으로써 우울은 노인자살과 청소년 자살에 있어서 단일 요인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셋째, 예측변인들이 기준변인을 설명하는 설명력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절망은 우울의 55.8%를, 스트레스와 절망과 우울은 자살생각의

41.6%를 설명해 주었다. 즉,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 보다 컸다. 이는 심리적 증상인 우울보다 자살생각이 더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하기 힘든 변인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의의와 상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그동안 자살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자살에 대한 우울과 절망의 효과를 정리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Beck의 연구(1963, 1967)이후 우울과 절망이 자살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으나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 연구들이 연구마다 각각 다른 변인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측정도구와 대상이 달라 그 연구 결과들을 비교하여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자살에 미치는 우울과 절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변인을 배제하였으며, 노인과 청소년이라는 상이한 집단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연구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논점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런 시도는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일관된 결과를 내리지 못한 자살생각에 대한 절망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상이한 연령집단간의 자살 연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통합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둘째, 이 연구는 노인과 청소년이라는 상이한 연령집단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하여 자살생각을 이해하고자 했다. 자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특정 연령집단에 국한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이한 연령집단을 동시에 조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므로 이런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자살연구에 있어서 상이한 연령집단의 고려는 자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살 관련 변인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며, 나아가 연령집단별 자살의 차이성뿐만 아니라 유사성을 조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 (Nisbet, 2000). 즉, 생애주기가 상이한 집단의 자살에서 발견된 공통적인 특성은 이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의 예방대책에 관한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근거하여 자살생각 관련변인으로 환경적 요인인 스트레스와 개인의 취약성 요인인 절망과 우울을 설정하여 이들의 관계 검증을 통하여 자살을 이해하려 하였다. 이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은 기존의 이론적 모델들이 자살과 관련된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해 주어 자살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도록 해 준다. 이런 관점의 채택은 자살을 환경적 요인으로만 설명하거나 개인·심리적 요인으로만 고찰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65세 이상의 노인과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두 학교의 1학년 학생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표집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연구 결과를 다른 지역의 노인이나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연령에 따라 우울과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을 동질집단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자살생각에

미치는 노인 연령의 차이를 검증해 자살생각과 자살생각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를 고찰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청소년 연구대상은 모두 서울에 소재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르리라 여겨지는 두 지역의 학교를 선정하였다. 기존 연구(한국청소년 상담원, 2007)에 의하면 자살생각을 처음 하는 시기는 중학교 때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자살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은 고등학생 때이므로 고등학교 1학년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연구대상이 서울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점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즉 우리나라 고등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이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스트레스라는 변인이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변인의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특성을 보다 잘 대표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표집을 통한 청소년 집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일, 정용철 (2001).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한국청소년 연구, 12(1), 5-27.
- 김형수 (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59-172.
- 김형수 (2006). 생애주기별 자살현황과 예방대책, 노인복지연구, 34, 271-292.
- 남 민 (1997). 청소년 자살. 대한의사협회지.

- 40(10), 1282-1287.
- 박광배, 신민섭 (199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20-32.
- 박광배, 신민섭 (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 배종면, 정은경, 유태우 (1992). 외래용 스트레스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가정의학회지*, 13, 809-820.
- 송동호, 이홍식, 전여숙, 정유숙 (1996). 청소년 자살기도의 정신의학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35(6), 1366-1375.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육성필 (2002). 자살관련변인의 탐색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은 (1995). 우울과 자기지향성 자기지각, 사회회적지지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수영 (1995).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인순 (2004). 중학생의 생활스트레스 경험과 대처방식이 우울, 무망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혁, 배종면, 최순식, 김성원, 황한식, 허봉렬 (1996). 외래용 스트레스량 측정도구로서 한국어판 BEPSI 설문서(수정판)의 타당성. *가정의학회지*, 17(1), 42-53.
- 원호택 (1997).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장미희 (2006). 노인의 우울과 자살사고에 관한 구조 모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7). 2006년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 결과. 서울: 통계청.
- 한국청소년 상담원 (2007).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 Allgood-Merten, B., Lewinsohn, P. M., & Hopes, H. (1990). Sex differences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55-6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revised). Washington, DC: Auther.
- Asarnow, J., Carson, G., & Gutgodhric, D. (1987). Coping strategies, self perceptions,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ical*, 55, 361-366.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autrais, A. L., Joyce, P. R., & Mulder, R. T. (1997). Risk factors for serious suicide attempts among youths aged 13 through 24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1543-1551.
- Beck, A. T. (1963). Thinking and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9, 324-333.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 New York: Hoebner Medical division Harper & Row.
- Beck, A. T., Brown, G., Berchick, R. K., Stewart, B. L., & Steer, R. A. (1990). Relationship between hopelessness and ultimate suicide: a replication with psychiatric out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190-195.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eck, A. T., Steer, R. A., Beck, J. S., & Newman, C. F. (1993). Hopelessn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clinical diagnosis of depress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 139-145.
- Beck, A. T., Steer, R. A., Kovacs, M., & Garrison, B. (1985). Hopelessness and eventual suicide: A 10-year perspective study of patients hospitalized with suicidal ide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 559-563.
-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 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61-865.
- Bonner, R. L., & Rich, A. R. (1987). Toward a Perspec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 50-63.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Allman, C., Roth, C., Schweers, J., Balach, L., & Baugher, M. (1993). Psychiatric risk factors of adolescent suicide: A case control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521-529.
- Brown, G. K., Beck, A. T., Steer, R. A., & Grisham, J. R. (2000). Risk factors for suicide in psychiatric out-patient: a 20-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371-377.
- Carlson, G. A., Cantwell, D. P. (1982). Suicide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 Cole D. A. (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Hopelessn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48-255.
- Conwell, Y. (1997). Management of suicidal behavior in the elderly.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 667-683.
- Conwell, Y., Caine, E. D. & Olson, K. (1990). Suicide and Cancer in Later Life.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1(12), 1334-1339.
- Crumley, F. E. (1979). Substance abuse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3, 3051-3056.
- De Wilde, E. J., Kienhorst, I. C. W. M., Diekstra, R. F. W., & Wolters, W. H. G.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nd life event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1), 45-51.
- Felner, R. D. & Silverman, M. M. (1995). Suicide prevention program: Issues of design, implementation, feasibility, and developmental appropriate. eds. In *Suicide Prevention: Toward the year 2000*, ed al.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Forsell, Y., Jorm, A. & Winblad, B. (1997). Suicidal thoughts and associated factors in an elderly populat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5, 108-111.
- Gould, M. S., Fisher, P., Parides, M., Flory, M., & Shaffer, D. (1996) Psychosocial risk factors of child and adolescent completed suicid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155-1162.
- Greuling, J. W., & DeBlassie, R. R. (1980).

- Adolescent suicide. *Adolescence*, 15, 580-601.
- Harwood, D., Jacob, R. (2000). Suicidal behavior among the elderly. In Keith Hawton(ed.),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John Wiley & Sons. Ltd.
- Kandel, D., Ravies, V.,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ab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89-310.
- Klerman, G. (1987). Clinical Epidemiology of suicid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8, 33-38.
- Kuo, W. H., Gallo, J. J., & Eaton, W. W. (2004). Hopelessness, depression, substance disorder and suicidality: A 13-year community-based study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39, 497-501.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ster, D. (1989). A Depression Paradox Theory of Suici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0.
- Lynch, T. R., Cheavens, J. S., Morse, J. Q., & Rosenthal, M. Z. (2004). A model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and hopelessness in depressed older adults: the impact of emotion inhibition and affect intensity. *Aging & Mental Health*, November, 8(6), 486-497.
- Maris, R. W. (1981). *Pathways to suicide: A Survey of self-destructive behaviors*. Baltimore, MD: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Marschean, A. (2002), Developing a Plan and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in the commonwealth. joint Commission on Behavioral Health Care.
- McIntosh, J. L., Santos, J. F., Hubbard, R. W., & Overholser, J. C. (1994). *Elder Suicide Research, Theory and Treat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cKeown, R. E., Garrison, C. Z., Cuffe, S. P., Waller, J. L., Jackson, K. L., & Addy, C. L. (1998). Incidence and predictors of suicidal behaviours in a longitudinal sample of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 621-629.
- Moscicki, E. K. (1995). Epidemiology of suicide. *Int Psychogeriatr*, 7, 137-148.
- Nisbet, P. A. (2000). Age and the Life Span. In Ronald W. Maris et al.(Ed.) *Comprehensive Textbook of Suicidology*. The Guilford Press.
-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P. (1992).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05-422.
- O'carroll, P., Berman, A., Maris., Moscicki, E. (1996). Beyond the Tower of Babel: A nonmenclature for suicidology. *Suicide Life-Threatening Behaviours*, 26, 237-252.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6). *OECD Health Data, 2006*.
- Rainer, J. D. (1984). Genetic factors in depression and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 Robert, R. E., & Chen, Y. R. (1995).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exican-Origin and Anglo adolescents.

-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1), 81-90.
- Rubenowitz, Waern, Whilemson, & Allebeck (2001).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elderly suicides a case control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31(7), 1193-1202.
- Rudd, M. D. (1990). An Intergrative model suicide ideation.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0, 16-30.
- Shaffer, D. (1974). Suicide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 Psychiatry*, 15, 275-291.
- Sherer, M. (1985).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 57, 1061-1062.
- Weissman, M. M. (1974). The epidemiology of suicide attemp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0, 737-746.
- Wetzel, L. D. (1976).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e Intent. *Arch General Psychiatry*, 33(9), 1069-1073.
- White, J. L. (1989). *The troubled adolescent*. New York: Pergamon Press.
- Wilson, K. G., Stelzer, J., Bergman, J. N., Kral, M. J., Iany, A. M., & Elliot, C. A. (1995). Problem solving,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 241-252.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

원 고 접 수 일 : 2008. 3. 2

수정원고접수일 : 2008. 4. 15

게 재 결 정 일 : 2008. 5. 9

Verific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Suicidal Ideation to Its Related Variables

Hyunsoon Kim

Byeongseok Kim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 structural model which can explain the relationship of suicidal ideation to its related variables. The subjects comprised 221 senior citizens over 65 years old and 221 high school students. Socio-demographic factors, Stress scales Hopelessness scales, Depression scales and Suicidal ideation scales were all employed. To process the data,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WIN 15.0, and a hypothetical testing model using AMOS 7.0 were appli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suicidal ideation was strongly related to depression.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competing model 1 was a better fit to the data than the other models. This meant that depression was more powerful a factor than hopelessness, having an influence upon the path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together with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Key words : suicidal ideation, stress, hopelessness, depression, structural relationship